

전독문제성의 기구와 활동



1969. 8

목 차

1. 연 력	1
2. 임 무	3
3. 기 구	3
4. 예하기관	8
가. 통독문제연구자문위원회	8
나. 전독문제문서실	12
다. 통독촉진위원회	14
5. 전독문제성의 활동	18
가. 인도적 노력	18
나. 동서독의 유대강화	19
다. 동서독 간의 여행추진	19
라. 동독정세의 파악	20
마. 실향민의 결속	20
바. 공보사업	20
사. 방송, TV 및 영화의 활용	21
아. 정치적 및 사상적 교육	21
자. 통독사업유공자 시상	22
차. 출판사업	22
결 언	23

서 문

의 국가는 「나치」 정권이 저지른 전쟁죄악의 대가로서 「독일 제 3제국」은 연합국에 의하여 국토가 동서로 분할되고 (서독: 248,452 km², 동독: 107,834 km²) 민족은 두개의 이질적인 정치체제를 갖게 되었으며, 한 가족이 동서로 이산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비극을 최대의 노력으로써 최단시일내에 불식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전독문제성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의 탄생을 이루게 했다.

서독의 경우 국토분단의 동기는 우리의 경우와 판이하지만 분단 현상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정치적 대립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같다. 이 대립적 현상은 날이 갈수록 그 상극의 도를 더하고 있어 통일에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점들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타개해 나가기 위한 제 1차적 작업으로서 우리와 같은 민족분단의 비극을 안고 그를 불식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전독문제성을 알아야 함은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겠다.

이러한 의도에서 통일업무전담기구로서 20년간의 업무경험을 쌓은 전독문제성의 기구와 활동상황을 여기에 대략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연 령

1949년 9월 총선거로 수립된 독일연방공화국은 분단된 국가의 비운을 통감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전독문제성을 발족시켰다.

동성의 초대 장관 (1949 ~ 1957) 은 야콥 카이저 (Jakob Kaiser) 였으며 그는 기독교민주당의 하원의원이기도 하였다.

그는 통독사업이 일반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다루기가 극히 힘든다는 것과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나 연구만으로는 힘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에 통독문제연구자문위원회 (4, 가 참조) 를 창설하였으며 전 국민이 통독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54년에는 통독촉진위원회 (4, 다 참조) 를 발족시켰다.

제 2 대 장관으로 렘머 (Ernst Lemmer) 가 1957년에 부임하여 5년간 재임하였다. 그의 후임으로 바젤 (Rainer Barzel) 하원의원이 임명되어 1963년 10월 아데나워 수상에 퇴임과 함께 물러났다. " 에르하르트 " (Erhard) 정부 (1963 ~ 1966) 에서는 멘데 (Erich Mende) 부수상이 전독문제성 장관을 겸직했다.

키징거 (Kiesinger) 정부에서는 베너 (Herbert Wehner) 가 제 5대 장관으로 취임했다. " 베너 " 는 사민당의 부당수이며 원내에 있어서 통독문제의 권위자이다. 이는 동성의 중요성을 말하는 한 표현이기도 하다.

" 베너 " 는 통독업무수행에 있어 백림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1969년 5월에 종래의 백림국을 7개과로 부터 10개과로 증설 하였다. 종래의 제 7과의 임무가 백림주재연방기구회계였던바 이를 제 1 국 제 2 과에 이관하고 " 독일 정책연구 " 의 임무를, 그리고 제 8 과는 백림의 법률문제, 제 9 과는 백림의 경제문제, 제 10 과는 백림에서의 전독일문제교양 등의 새로운 과를 신설 하였다.

2. 임 무

전독문제성은 분단된 독일의 통일방안을 찾아 타부성과의 긴밀한 협조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실현한다는데 그 임무를 띠고 있다. 동성은 또한 독일국민에게 「자유와 평화리의 국토통일」이란 이념을 견지하도록 지도, 강화하고 국토분단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여러가지 불리한 작용(문화적, 사회적면에서의 양독의 격차)을 감소시키며 더우기 국토양단이 국민에게 끼치는 보다 큰 제반악작용(정치적, 법적, 국민성의 문제)을 방지하고 동독공산화실정에 관한 정보수집 및 조사와 또한 통일후의 행정 및 그밖의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는 임무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임무의 수행은 정치적 및 행정적인 성질의 것이다.

동성장관은 정부 및 의회에서 다루는 서독의 일반적인 문제(국무위원자격)와 양독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관장한다.

동성장관은 또한 서독국민에게 전 독일에 관한 사정, 서독정부외에 동독정책 및 동독공산화 실정을 주지시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

3. 기 구

동성장관은 수상의 지휘하에 동성을 관장한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전독 및 백림문제분과위원회가 있어 동성과 관련을 가진다.

동성은 1968 년도에 일반고용인을 합하여 총 330 명의 직원이 있으며 동년 시행예산은 1억불이었다. 예산의 규모로 볼때 동성은 국방성, 내무성, 경제협력성, 과학조사성, 경제성, 외무성 등의

다음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예산의 2 백분지 1 을 점하고 있다.

동성은 장관아래 차관을 두고 제 1, 제 2 및 제 3 국장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각국은 우리나라 행정기구에서는 볼 수 없는 두개의 분국 (Unterabteilung) 을 두고 있다.

제 1 국의 제 1 분국은 단적으로 말하면 동성의 일반총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인사·경리·보안 및 예하부서기관의 지도,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국 제 2 분국은 통독축진의 업무인바 국경문제, (이 문제는 전체독일의 입장에서 볼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즉, 통독일의 동구에 접한 국경선이 " 오 - 더 나이세 " (Oder - Neisse) 선으로 되어 있으며 통일된 독일이 이선을 인정한다는 것은 독일의 영토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를 예의 분석 검토하며

동서교류, 피난민문제 (이는 동독 내지 기타 공산권으로 부터 월서한 자들을 추방자, 피난민, 전상자성, 숙청 피난민성과 협력하여 구호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 분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국민성의 변질문제 등을 조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제 2 국의 제 1 분국은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문제를 조사연구 하는바 통독 일반적인 정책, 국제법상의 서독의 지위문제 및 통독후의 국내법적용문제, 양독일의 경제, 교통 및 우편문제, 농업문제, 노동 및 사회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동국 제 2 분국은 " 매스콤 " 을 이용하여 동독의 사정을 서독민에게 주지시키며 특히 청소년에게 반공사상의 고취와 통독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 준다.

제 3 국은 전적으로 백림문제를 다루고 있다. 백림은 대륙의 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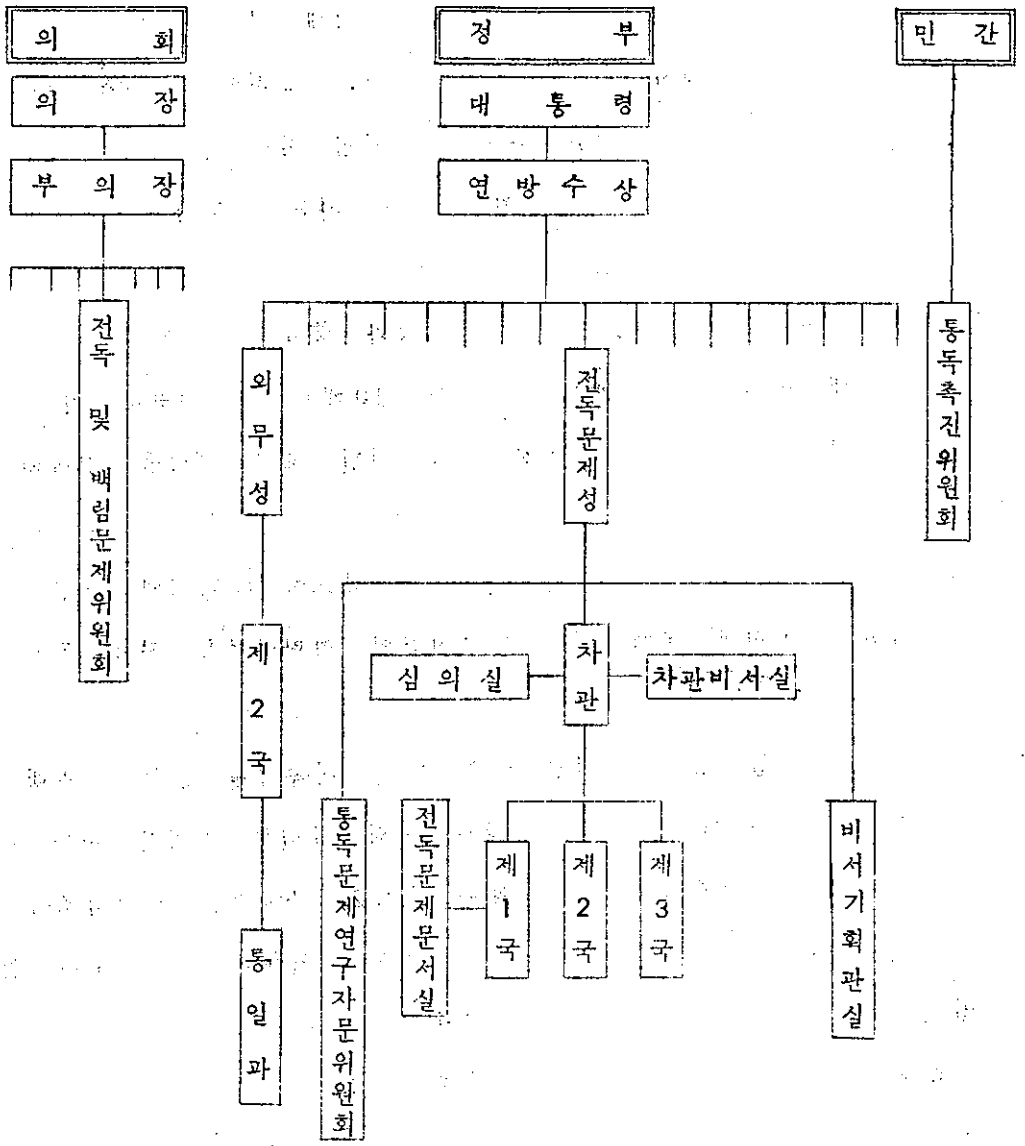
이며 특히 미·영·불 등 연합군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및 행정사항은 복잡한 일이다. 그리하여 동국에서는 백림의 정치문제, 문화문제를 다루며 서백림 시민에게는 신문, 잡지 등 인쇄물과 Radio 를 이용하여 고도에 사는 고독감 또는 위기감을 해소시킨다.

이러한 동서의 지리적, 정치적 특이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1969년 5월에 종래의 7개과였던 동국이 10개과로 되었는데 이들과는 백림의 법률, 경제 및 통일사업을 위한 교육문제들을 전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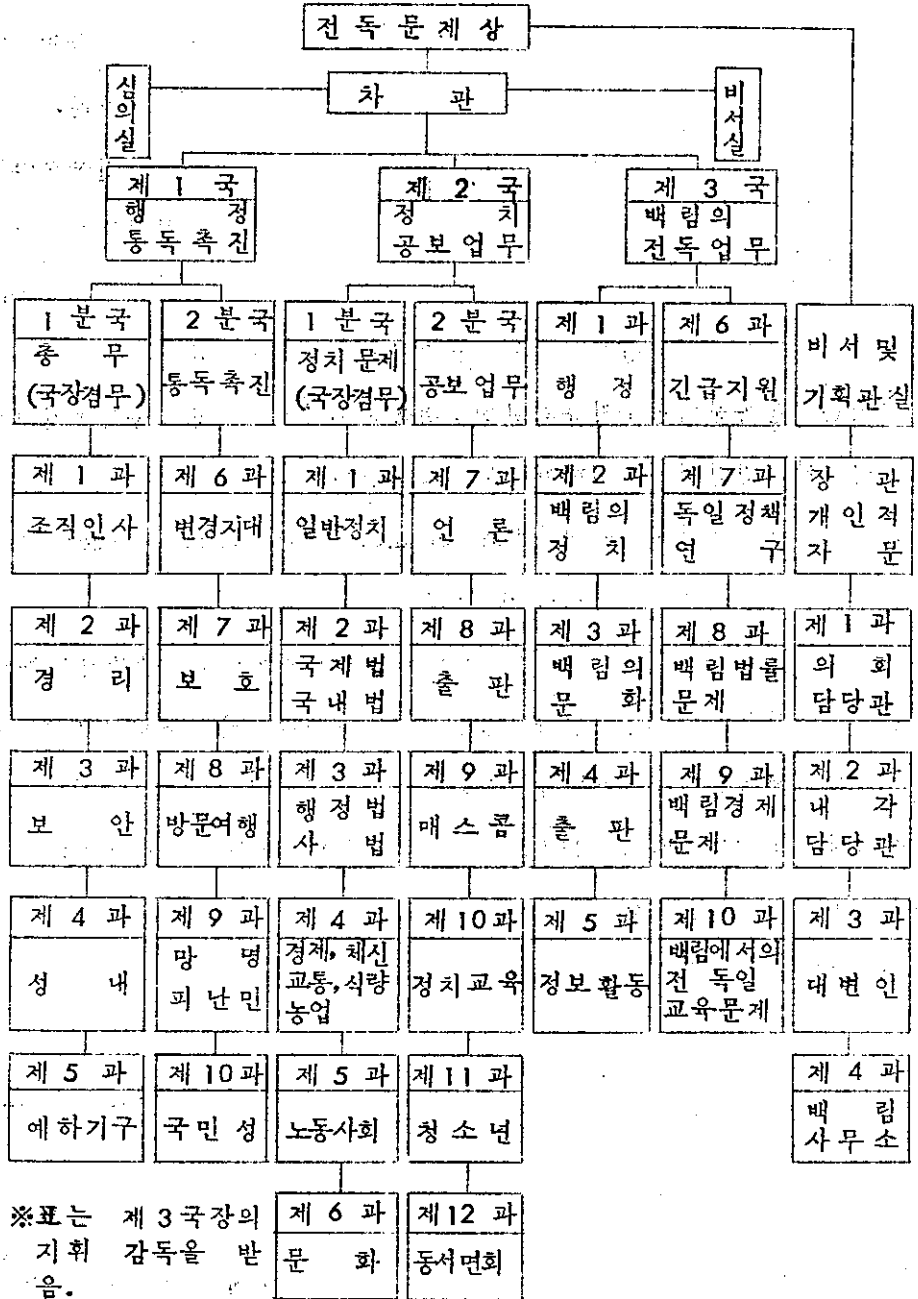
끝으로 장관비서실은 비서와 기획관이 있으며 장관에게 개인적 보좌를함과 동시에 국회, 정부 타부처와의 연락업무를 하며 동성 공보업무를 맡고 있다.

동성의 상기한 광범한 사업은 연방수상 직속하에 있는 "게렌" (Gehlen) 조직이라 불리는 연방정보국의 긴밀한 지원을 받아 제 정보와 자료가 입수되며 타방 외무성 제2정무국과의 회적협조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반정책의 연구는 통독연구자문위원회와 동성 문서실에 의하여 수행된다.

동성의 기구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전 독 문 제 성 기 구



4. 전독문제성리에하기관

충실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제는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 각분야 전문가의 노력이다.

통일문제가 다루는 분야는 넓은 것이어서 이 문제를 전문분야별로 다루기 위하여 동성은 그 산하에 통독문제연구자문위원회와 전독문제문서실을 두어 연구하게 하며 범국민적인 통독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독촉진위원회 라는 민간단체를 두고 있다.

다음에는 통독문제연구자문위원회, 전독문제문서실 및 통독촉진위원회에 대하여 간단히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가. 통독문제연구자문위원회 (Forschungsbeirat für Fragen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1949년 연방정부 수립과 동시에 전독문제성이 발족되었는데 공무원에만 의하여 통독문제가 연구되고 통독정책을 수립하려고 하였지만 이 정책수립이 너무나 광범하고도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성질의 일이었으므로 1952년에 동 통독문제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통독을 위한 경제문제를 주로 연구 하게하여 전독문제성상의 통일정책 수립에 자문하도록 하였다.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7. 국민 경제균형분위 (Der Ausschuss für volkswirtschaftliche Bilanzierung) 가 있는바 이 위원회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금속, 화학, 건축자료, 기계공업, 자동차공업, 등등으로 분업적인 연구가 진행된다. 이러한 연구는 통일된 독일의 경제문제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주로 동독의 산업 12부분의 제 공업의 진상을 조사 분석

한다.

ㄴ. 농업분과위원회 (Agrar Ausschuss)

동 위원회는 동독의 농업경제를 비롯하여 식량문제, 농업자
급 및 동자급의 유통기구 및 임업문제를 연구한다.

ㄷ. 상업문제분과위원회 (Ausschuss für fragen gewerblichen
Wirtschaft)

제 보험문제를 비롯한 상업문제를 연구하는바 특히 계획경
제 체제하에서의 소비조합제도로 부터 통일 후에 실시될 개인기업
에 의한 유통과정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ㄹ. 사회분과위원회 (Sozial Ausschuss)

사회주의 하에서의 노동조건을 조사, 분석하며 단체고용계약
의 실태를 파악하여 후일의 대비책을 강구한다. 또 일반국민의
주택사정도 조사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와 전상자 보호의 현황
을 파악한다.

ㅁ. 개정분과위원회 (Finanz Ausschuss)

사유기업이 없는 동독에서의 재정연구는 중요한 문제들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독의 재정을 연구하며 일반국민의 가
계연구를 동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ㅂ. 교통, 체신분과위원회 (Ausschuss für Verkehr, Post und
Fernmeldewesen)

철도, 도로, 연안수송 등의 각수송 수단별 시설의 현황은
물론 그 운영방법과 통일 후에 직결될 제반문제를 검토하고 소통
에 만전을 기하도록 연구 대비한다.

8. 경영회계분과위원회 (Ausschusü für betriebliche Wirtschaftrechn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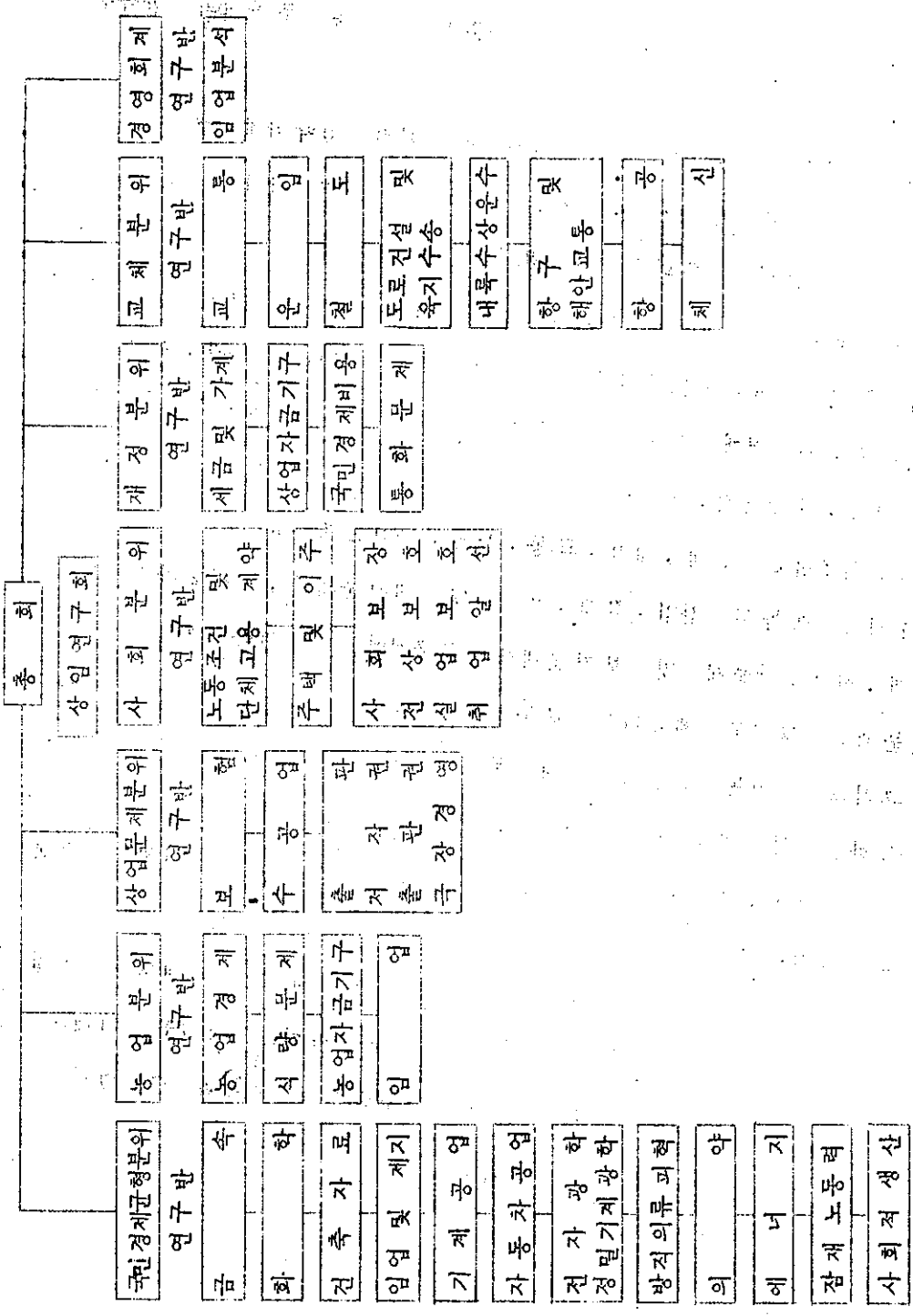
경제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동독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계방법을 연구하고 동독의 제 경영체에 대한 재산평가의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이상에 약술한 7개분과위원회는 각기 분야별로 연구 작성된 안건은 해 분과위원장과 상임연구회의 최종적 조정을 거쳐 전독분제 성장에게 건의 또는 보고의 형식으로 발표된다.

상임연구회는 각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되는 저명한 대학교수들로 이루어 진다. 또한 중요한 연구과제의 보고는 관민 혼합체인 총회의 심의를 거칠때도 있다. 이 총회는 각 정당, 경제계, 은행계, 노동조합 등의 21 단체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 통독문제연구자문위원회의 기구는 다음 도표와 같다.

통독문체연구자분위원회



나. 전독문제문서실 (Archiv für gesamtdeutsche Fragen)

종래의 비상설적이며 제한된 범위의 연구에 그쳤던 통독문제 연구자문위원회의 활동만으로서는 전독문제성에 부과된 사명을 이론적, 기술적으로 수행하기에 불충분 하였으므로 동 문서실의 발족을 보았다.

동실은 전독문제성 제 1국 제 5 과와의 횡적 연락 하에 운영된다.

이 실은 대별하여 제 1, 제 2 연구반이 있으며 제 1 연구반은 주로 통독을 위한 동독의 정치, 법률 및 문화에 관한 연구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바 제 1 과는 공법, 사법, 경제법, 행정법 및 사법 등의 법률관계를 전담하고 제 2 과는 군사력의 평가, 외교정책, 국내정책, 통독정책 등의 제 정책의 검토를 하고 제 3 과는 문화, 국민 교육, 가족문제, 청소년문제 등의 교육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연구반은 경제, 재정, 교통, 노동, 사회문제 등을 연구하는데 제 1 과는 동독의 산업, 경제, 상업 및 재정문제를, 제 2 과는 노동문제, 사회보장문제 및 보건문제를 연구하며 제 3 과는 농림 및 수산문제, 그리고 제 4 과는 교통, 체신 및 원자력문제를 연구한다.

그리고 동서독의 경제의 제 분야에 공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경제기록 및 통계과의 역할도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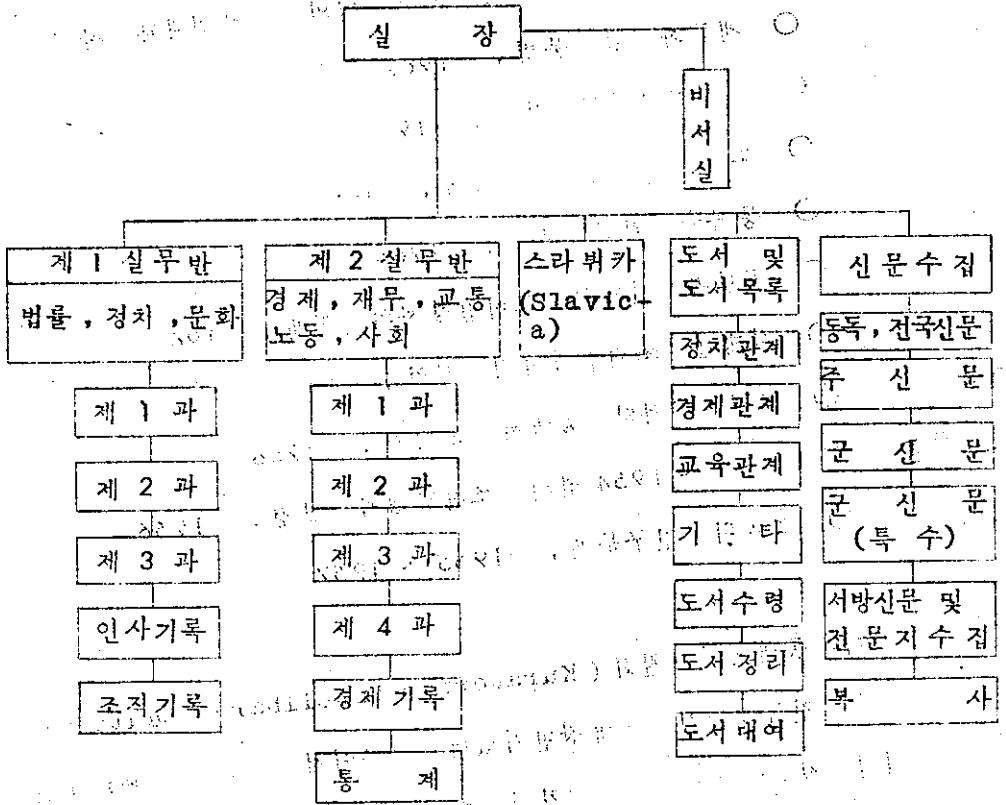
이상 제 1, 2 연구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도서 및 신문 등이 구비, 정리되어 있다.

또 "스라비카" (Slavica) 라 하여 동구제국에 산재하는 독일계와 스라브족 과의 혼혈관계를 조사연구 한다. 이들은 현재도 독일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통독에는 도외시될 수 없는

요소의 하나이다.

동 문서실의 기구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전 독문재문서실



동 문서실은 그동안 각분야에 공하여 방대한 연구업적을 쌓았는데 그 주요한 것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독일정책 1965, 1966
- 소련점령지역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발췌, 1968
- 동독자립 농민의 강제집단화, 1960
- 소련점령지역으로 부터의 탈주와 1961년 8월 31일의 백림의 벽, 1965
- 백림의벽 구축이래 접경지대의 인권침해와 사고발생, 1962
- 제도화 된 불법, 1962
- 소련점령하의 선거, 1965
- 소련점령하의 교육정책, 1967
- 통독을 위한 준비, 1966
- 공황과 전략의 소련점령하의 경제, 1964
- 실패한 소련점령하의 산업, 1964
- 소련점령하의 A에서 Z까지, 1966
- 1945 ~ 1954 년의 소련점령하 실정, 1956
- 동독의 인구문제, 1955 ~ 1957

다. 통독촉진위원회 (Kuratorium Unteilbares Deutschlands)

전독문제성 초대 장관이었던 "카이저" (J.Kaiser)는 통독사업이 정부만으로서의 정치적, 행정적인 일방적 노력으로서는 용이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 사업에 전국민이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분단될 수 없는 독일"이라는 제명으로 1954.6.14

에 이 통독촉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사업을 위한 범국민운동단체인 이 통독촉진위원회에서는 서독내의 각 정당, 일반사회단체, 문화, 교육계에 이르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완전한 민간기구이다.

그 기구는 중앙 및 하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기구는 연방촉진위원회 (Bundes Kuratorium) 인데 이는 정치위원회, 백림위원회, 문화위원회, 법률위원회, 교육활동위원회, 청소년문제위원회 등 등 총 12개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각 전문위원회에서 연구완성된 제 안건들은 특별정치위원회 (Erugerer Politischer Ausschuss) 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문제는 정부에 건의하며 또 하부조직인 지방위원회 실시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은 각 해당지방위원회에 하달된다.

하부조직에 서달된 사항은 그 실시내용이 통독과 직결되지 않는다 치드라도 국민은 이것이 통독을 위한 한걸음(一步)이라고 생각하게 되므로 항상 통독사업을 염두에 두게된다.

특별정치위원회는 정제(여, 야)인사 및 각 사회단체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백림시를 포함한 12개 주 위원회 (Landes Kuratorien) 가 있으며 전국에 총 2,000 개의 지방위원회가 있다.

동 통독촉진위원회를 도표로보면 다음과 같다.

통독촉진위원회

연방촉진위원회
(Bundes Kuratorium)
총재
사무총장

의장단
(Präsidium)

특별정치위원회
(Engerer Poli-
tischer Aussch-
huss)

- 정치위원회
- 활동위원회
- 백림위원회
- 접경위원회
- 문화위원회
- 법률위원회
- 공보위원회
- 재정위원회
- 역사활동위원회
- 교육활동위원회
- 청소년문제위원회
- 교육정책위원회

주촉진위원회
(Landes Kuratorien)

- 바덴·뷔템베르크
- 바이에른
- 브레멘
- 베르린
- 함부르크
- 헝겔
- 나이더작센
- 라인란트
- 라인란트팔츠
- 잘란트
- 슈레스빅·홀슈타인
- 웨스트팔렌·림페

지방촉진위원회
(Bezirks, Kreis und
Orts Kuratorien)

2,000 개

- 활동위원
- 청소년활동위원회

순수한 민간단체인 동독촉진위원회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적극호응하여 서독 및 서구의 자유와 안전의 테두리안에서 활동한다. 그 몇가지 활동을 보면 통일을 위한 국민 계몽을 예로 들 수 있다.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각 정당 및 사회단체의 통일정책 〇을 국민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저명한 학자 및 문화인들의 일반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동독의식을 고무한다.

동독내에서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UN에 호소하기도 하며 동독으로 부터 온 피난민을 환영 구호하고 그들의 직장알선을 하여 준다.

또 동독에서 오는 여행자를 도와주어 분단된 민족이지만 동일민족이라는 정신을 굳게 하고 자유주의사회의 승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기도 한다.

끝으로 이 기구의 운영을 위한 기금은 제 노동조합, 고용주조합 및 각 지방 기구가 주동이 되어 지출하지만은 또 한편 1958년 이래 전국을 통하여 국민 1인당 1 "페니" (7원)씩의 기부금으로 마련 된다.

① 1965년에 동 위원회는 국회내의 각 정당의 공통적인 통일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 발표한바 있는데 독일정부 대변인도 이러한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가) 동독은 무력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방법에 의하여 실현

되어야 한다.

나) 독일의 분단은 독일국민의 자결권의 부인이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무기한 연장해서는 안된다.

다) 독일문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점진적 해결이 필요하다.

라) 독일은 그 자신은 물론 동서의 모든 인접국들을 위한 안전보장체제에 동의 할 용의가 있다.

마) 독일의 동부국경은 평화조약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바) 독일은 자유와 자결원칙하에서 동서방의 제 국가들과 선린관계를 원한다.

사) 자유속에 통일된 독일은 타국에게 대규모의 경제, 기술, 문화원조를 제공 할 용의가 있다.

아) 당면한 과제는 백림을 수도로서 발전시키며 독일전역에서 인적접촉을 강화하고 인적 및 사상의 이동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5. 전독문제성의 활동

가) 인도적 노력

국토의 분단에 의한 비극을 절실히 느끼는 자는 누구보다도 동서로 헤어진 부부, 가족 및 자녀들이다.

또 동서독에 헤어져 있는 약혼자도 동독법에 의하면 약혼자가 동독으로 이사하지 않는 한 결혼이 허가되지 않는다. 동독에 있는 정치범도 수다하다.

이러한 인간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또한 동성의 활

동이기도 하다.

나) 동서독간의 유대강화

동성은 동서로 헤어져 있는 친척이나 친지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일반에게 권고하며 개인적인 상담에 응하고 있다. 이는 불원한 장래에 있을 통독선거시에 동서독인들이 개인적인 친밀감에 의하여도 서독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기대도 크며 양독인간에 있을 수도 있는 적개심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리고 동독방문에 필요한 동독의 여행규칙 및 우편규칙(특히 소포)을 주지시켜 동독당국에 의하여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한다.

또 동서독 국민의 인간적 접촉을 도울기 위하여 정치적 동기나 의무 같은 것은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있다.

다) 동서독간의 여행추진

동독의 허가를 얻어 서독에 오는 여행자는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의 연금수령자 들이다.

이들은 동서독분계선을 넘을때에 동독당국에 의하여 5 DM밖에 허가되지 않음으로 서독에 도착하자마자 서독에 있는 그들의 친척이나 친지 또는 제 사회단체 및 정부의 구호를 받는다.

1968년에 약 1백 40만의 동백림 및 동독시민이 1일의 체류허가를 동독당국으로 부터 얻어서 서독에 여행하였다.

그 외에 3,260명의 정치, 과학 및 문화인들이 서독을 공적으로 방문하였다.

그 반면에 1968년 1년간 서독민은 약 370만이 동독을 방문

하였다. 이는 1967에 비하여 약 30만의 감소를 보았는데 이것은 동독의 「비자」 제도의 강화에 따른 영향과 소련군의 「체코」 점령에 따르는 심리적 작용이라 하겠다.

라) 동독정세 파악

동서독간의 행정적 유대강화를 위하여 특히 법률문제·행정법 등의 추이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성상 주재하에 각 주의 내무국장과 실무자들의 회의에서 동독의 사회적 변천에 관한 강연회를 가졌다.

또 동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동독의 가정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동독에서의 부녀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조사한바 있는데 이 문제는 서독의 각 부인단체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마) 실향민의 결속

동성은 동독으로 부터의 추방자 및 피난자들의 모임을 기구화 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기구들은 서독의 원주민(1945년전 부터 서독에 거주하는 자)과 단합하여 서독정부의 통독정책을 이해, 보급 시키는데 직접, 간접으로 보조하게 하고 있다.

바) 공보사업

서독정부의 통일정책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사업은 전 구 주의 긴장을 해소하고 동서독간의 긴장의 완화를 위한 동성의 중요 임무의 하나이다. 이 사업은 신문 방송 및 영화 등 매스콤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문: 신문은 실제적인 보도활동 이외에도 서독정부의 정책 및 동독의 변천을 끈임없이 보도하며 동성의 모든 사진보도는 서독내

에 게재하는 약 5000 명의 외국 기자들에게 제공된다.

사진: 국경선의 사진촬영을 돕기 위하여 중앙사진실을 건설하였다.

제 보도기관은 독자에게 정치적 범위를 벗어나 동독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 방송, TV 및 영화의 활용

동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독에 관한 영화 필름은 무려 50만 m에 이른다. 동성에서 제작한 운동경기 기록 및 문화영화들은 TV를 통해서 방송되며 국경선에 관해서도 매일 촬영하여 TV로 전국에 방송한다. 또 백림이나 국경선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들을 단편적 영화로 제작하여 주기적으로 외국 시청자에게 제공 한다.

아) 정치적 및 사상적 교육

각 단체와 기구에서는 통독정책의 광범한 토론을 장려하고 각종 회의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각 집회에서 주로 취급되는 문제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것 들이다.

- ㄱ. 전후의 사적 자료에서 본 독일문제
- ㄴ. 독일통일을 위한 연방정부의 통독정책의 제의와 그 분석
- ㄷ. 현실적인 구주정책과 독일문제
- ㄹ. 동구의 사정 및 정보와 동서구의 비교

이러한 광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8년에 971 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 모임에는 3,200 명이나 참가 하였다.

또 동성은 「독일문제의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순회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특히 평화의 유지, 구주에 있어서의

긴장 완화 및 독일분단의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역역히 보였다.

1967년 1년동안에 318,000명의 서독국민이 동성의 지원에 의하여 백림의 벽을 구경하였으며 공산측의 인위적인 국토분단의 비극을 목격하게 하였다.

그외에 외국인 노무자와 외국기자들도 이 관광여행에 초대되었다.

자) 통독사업유공자 시상

통독문제를 적극적으로 광범하게 다룬 예술인과 문필가들의 업적과 노력을 더욱 고무하기 위하여 문학, TV 및 "라디오" 드라마 작가들을 동성은 시상 하였다.

서독의 저명한 정치가 Thomas Dehler의 1주기일인 1968. 7. 21에 Dehler 상을 학자이며 동시에 문필가인 Ernst Richert와 소설가인 Jachen Zim 이 받았다. 수상자의 선발은 행정기구와 관계없는 제3인의 추천에 의하여 결정 되었다.

그외에 초대전독문제성상의 이름을 딴 "Jacob Kaiser" 상을 Gerhard Langhammer 가 받았는데 그는 "건너편" (동독) 및 "동에서 서로 온 실향민" 등의 TV물을 제작 하였다.

차) 출판사업

서독의 통독에 관한 제 정책이 개인적인 신문이나 또 다른 책자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도 및 주지되는 것 만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동성은 통독정책 및 그 연구 결과의 지표를 직접 출판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별하여 동성장관 또는 타부처장관들의 통독문제에 관한 견해 및 성명, 동독의 공식적

성명 등을 상세히 발표한다. 또 독일의 수도문제, 동서독 분계선문제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 서백림에 오는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결 언>

이상으로서 서독의 전독문제성의 기구와 그 활동을 개관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하며 또 참고 할 일들은 다음의 몇 가지를 들을 수 있다.

1. 현재 우리국토통일원의 기구는 초창기이기는 하지마는 너무도 소규모이다. 국토통일 사업이 금명간 성취되는 것이 아니겠지 만 장기에 한한 계획적, 단계적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기구의 확장파 유능한 인재가 필요 할 것이다.
2. 국토통일 사업은 행정부의 단독사업이 아니며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원없이 는 힘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통일 사업의 역군이 되게 하는 "통일촉진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여 창설 할 필요가 있다. 이 단체는 최대의 노력으로서 정부를 위한 정치적 단체라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현재 우리국민은 통일사업이 하나의 너무 힘드는 것인양 또는 무정견한 맹목적인 통일론 즉 실현불능한 견해를 논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논리 및 비조리의 통일론을 방송, TV 및 신문 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선도하고 통일의식을 더욱 교도 할 필요가 있다.

4.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더욱 고무하여야 한다. 승공통일의 이념을 각각 다른방법이지만 전 국민을 계몽하고 선도하는 인사들을 보상 또는 표창하여 승공통일 이념이 보급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하 1. 승공통일 이념을 선전하는 데에 공헌한 인사들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한다.

부하 2. 승공통일 이념을 선전하는 데에 공헌한 인사들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한다.

부하 3. 승공통일 이념을 선전하는 데에 공헌한 인사들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한다.

부하 4. 승공통일 이념을 선전하는 데에 공헌한 인사들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한다.

부하 5. 승공통일 이념을 선전하는 데에 공헌한 인사들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한다.

부하 6. 승공통일 이념을 선전하는 데에 공헌한 인사들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한다.

부하 7. 승공통일 이념을 선전하는 데에 공헌한 인사들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한다.

부하 8. 승공통일 이념을 선전하는 데에 공헌한 인사들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한다.

부하 9. 승공통일 이념을 선전하는 데에 공헌한 인사들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한다.

부하 10. 승공통일 이념을 선전하는 데에 공헌한 인사들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한다.

< 참 고 사 항 >

백 행 결 양단된 국가의 통일문제, 대한공론사 1968.

통일문제연구 외교연구원 (외무부) (1967)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1967.1968 (연방정부보고서)

Fünfter Tätigkeitsbericht 1965 ~ 1969 (제5차 업적보고서)

통독연구자문위원회

